

#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관련 태도와 과제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빠른 중국사회 변화와 더불어 중국 동포 사회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족자치구를 떠나 한국이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중국 동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경시와 연길시 거주 조선족과 한족 부모 4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자녀 가치와 양육 관련 태도 등의 민족 간·거주지 간 차이를 파악하고, 영유아를 둔 중국 동포 지원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선족은 한족에 비하여 남아 선호 태도가 강하고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북경 거주 조선족이 자녀양육과정에서 더 많은 혼란은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경 중국 동포는 전통적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자녀가 성장한 후에 한국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높았다.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강화 시각에서 조선족 유치원 프로그램 지원, 한중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교류, 동포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강화 등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중국 동포의 자녀 교육과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1. 서론

중국 동포는 중국 인구의 0.15%인 소수민족으로 연길조선족자치주 등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동족 사회를 이루어 한민족 고유문화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성장 등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이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조선족이 증가하여 연길조선족자치주 거주 동포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 관련 태도를 알아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중국의 자녀 관련 정책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조선족과 한족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족과 조선족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양육 정서를 비교하였고,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양육 행태와 기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동포는 밀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 거주자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선족 사회의 인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여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sup>1)</sup>

## 2. 중국의 자녀 관련 정책 특성

중국의 자녀양육이나 유아교육·보육 지원 수준은 높지 않다. 중국의 자녀 관련 정책으로는 한자녀 정책, 생육보험, 그리고 2010년부터 실시하는 교육개혁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자녀 관련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녀 정책이다. 중국 혼인법이나 인구와 가족 계획 법률은 가족계획을 의무화하고 한자녀 출산을 권장하며, 국가가 인구 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한자녀 정책은 소수 민족, 첫자녀가 딸인 농촌 부부, 부부가 모두 외동인 부부에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자녀 정책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공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잃기까지 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지방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성장률 급감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험을 들어서 한자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sup>2)</sup>

둘째, 중국은 자녀나 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은 거의 없고, 생육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 대체소득을 지원한다. 2000년 인구총조사 결과, 중국 16~54세 여성인구의 취업률은 78.3%로 노동에 있어서 남녀가 거의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는데, 여성근로자 출산 지원 방안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생육보험제도<sup>3)</sup>를 두고 있다. 생육보험 급여는 출산휴가, 출산 의료비, 생육보조금이 있으나 가장 주된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로, 이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여성노동자를 생육에 의한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육보험 기금은 기업이 직원급여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생육보험료로 충당한다. 근로자 본인부담은 없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 미만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5~0.7%의 요율을 적용한다.

셋째, 중국 유아교육정책은 시작 단계에 있다. 개방개혁 이후 공적 탁아서비스 기능은 거의 붕괴되었고, 그 대신에 민간 서비스가 증가되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유아서비스의 비율은 60%에서 40%로 감소되었으며 민간유아서비스 비율은 40%에서 60%로 증가되었다.<sup>4)</sup> 그러나 민간 공급자를 위한 질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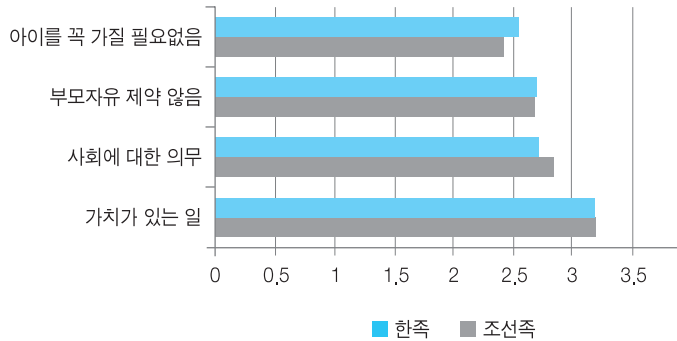
1)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협동연구인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서문희·이윤진·최윤경·박금해, 2011)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Wall Street Journal, 2011. 4. 29일자 보도.

3) 중국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이며, 이외 mandatory housing fund가 추가됨.

4) Liu(2010), Zhou, X(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 2011. 재인용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중  
장기 교육 개혁 발전(2010-2020)을  
위한 국가계획(the Plan)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취학전 교육 목표는  
1년간 등록률을 2009년 74%에서  
2020년 95%까지 높이고, 2년, 3  
년 등록률도 각각 2009년 65%  
에서 80%, 50.9%에서 70%로 높이  
겠다는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인식

### 3.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

중국 동포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로 자녀  
갖기, 자녀 가치 및 성 선호 태도를 한족과 비교  
하고, 또한 지역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가. 자녀 갖기

부모 되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네 가지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척도는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한 찬성 정도  
가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의 순  
으로 찬성 정도가 높다(그림 1 참조).

조선족은 북경에서 자녀 갖기에 긍정적이었고,  
부정적 인식 문항인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에서도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보다 찬성  
비율이 높다. 즉, 자녀 갖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 표 1 > 민족과 지역별 자녀에 대한 인식: 4점 평균

단위: 점(명)

| 구분               | 조선족   |       |         | 한족    |       |         |
|------------------|-------|-------|---------|-------|-------|---------|
|                  | 북경    | 연길    | t       | 북경    | 연길    | t       |
|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 3.29  | 3.11  | 8.8**   | 3.21  | 3.16  | 0.3     |
|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 2.99  | 2.71  | 13.8*** | 2.73  | 2.71  | 0.02    |
|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 2.85  | 2.51  | 19.0*** | 2.80  | 2.59  | 4.2*    |
|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 2.60  | 2.27  | 16.2*** | 2.79  | 2.29  | 25.0*** |
| (사례수)            | (200) | (199) |         | (100) | (1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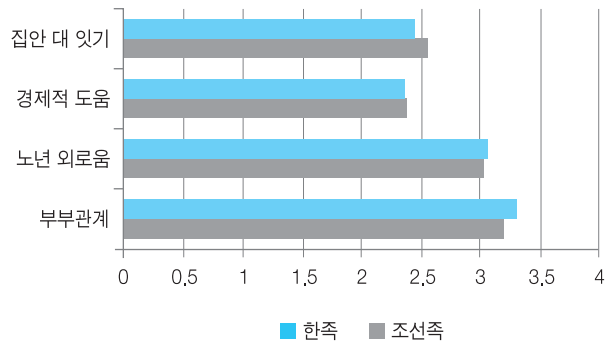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p < .001, \*\*p < .01, \*p < .05

의견이 북경 조선족에게서 모두 높다. 한족의 경우도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문항과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긍정 항목에서 모두 북경 한족의 응답률이 높았다. 민족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며 사회적 의무라는 긍정 항목에의 찬성 응답이 가장 높고,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부정 문항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두 민족 모두 지역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경 거주민의 자녀 갖기에 대한 인식이 연길 거주민에 비해 다양하고 뚜렷하게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표 1 참조).

#### 나. 자녀의 도구적 · 정서적 가치

자녀의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서적 가치는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줌’과 ‘노년에 덜 외로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그림 2]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도움을 줌’, ‘집안의 대를 이음’의 총 네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조선족과 한족 모두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와 ‘노년에 덜 외로움’은 점수가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점수보다 높다(그림 2 참조).

민족별로는 대체로 정서적 가치는 한족이 조선족보다 높고 도구적 가치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서적 가치 중에서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문항은

〈 표 2 〉 민족 및 지역별 자녀 가치 인식: 4점 평균

단위: 점(명)

| 구분           | 조선족   |       |                     | 한족    |       |                  |
|--------------|-------|-------|---------------------|-------|-------|------------------|
|              | 북경    | 연길    | t                   | 북경    | 연길    | t                |
|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함 | 3.28  | 3.10  | 6.7 <sup>*</sup>    | 3.39  | 3.22  | 3.5 <sup>*</sup> |
| 노년에 덜 외로움    | 3.08  | 2.96  | 2.6                 | 2.99  | 3.11  | 1.3              |
| 노후에 경제적 도움   | 2.56  | 2.23  | 18.3 <sup>***</sup> | 2.49  | 2.23  | 6.7 <sup>*</sup> |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 2.66  | 2.45  | 6.7 <sup>*</sup>    | 2.41  | 2.50  | 0.6              |
| (사례수)        | (200) | (199) |                     | (100) | (101)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p < .001, \*p < .05, # p < .1

한족의 찬성 정도가 높고, 도구적 가치 중에서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문항이 조선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정서 및 도구적 가치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적 차이는 한족보다는 조선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표 2 참조).

#### 다. 자녀 성 선호

자녀 성 선호 태도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와 ‘여아보다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두 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

반적으로 성 선호 점수는 4점 만점에 2점 내외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지 않으나,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남아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두 문항 찬성률이 각각 32.3%, 25.1%이고 한족은 22.4%, 21.9% 수준이다(표 3 참조).

이는 한족에게는 강하게 적용하고 소수민족에게는 비교적 융통성을 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한족의 경우는 자녀의 성 선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4점 만점 점수로 지역별 차이를 보면 한족은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으나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강한 성 선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를 잇기

〈 표 3 〉 민족별 부모의 자녀 성(性) 선호 태도

단위: %, 점(명)

| 구분              | 전적 반대      | 대체로 반대 | 대체로 찬성 | 전적 찬성 | 계(사례수)     | 4점 평균 |
|-----------------|------------|--------|--------|-------|------------|-------|
|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            |        |        |       |            |       |
| 조선족             | 26.3       | 41.4   | 25.8   | 6.5   | 100.0(399) | 2.13  |
| 한족              | 23.4       | 54.2   | 18.4   | 4.0   | 100.0(201) | 2.03  |
| $\chi^2(df)/t$  | 10.0(3)    |        |        |       |            | 1.7   |
|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            |        |        |       |            |       |
| 조선족             | 29.1       | 35.8   | 24.8   | 10.3  | 100.0(399) | 2.16  |
| 한족              | 27.9       | 50.2   | 19.4   | 2.5   | 100.0(201) | 1.97  |
| $\chi^2(df)/t$  | 19.2(3)*** |        |        |       |            | 6.5   |

주: 4점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 p < .05

〈 표 4 〉 민족 및 지역별 부모의 자녀 성(性) 선호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 구분              | 조선족   |       |         | 한족    |       |     |
|-----------------|-------|-------|---------|-------|-------|-----|
|                 | 북경    | 연길    | t       | 북경    | 연길    | t   |
|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 2.35  | 1.90  | 26.8*** | 2.08  | 1.98  | 0.9 |
|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 2.41  | 1.91  | 28.3*** | 1.94  | 1.99  | 0.2 |
| (사례수)           | (200) | (199) |         | (100) | (101)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배경 2.35점, 연길 1.90점이고,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문항은 배경 2.41점, 연길 1.91점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4 참조).

## 4. 자녀 양육 정서

세 가지 문항으로 자녀양육 시 느끼는 조선족과 한족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부정적 정서를 조사

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조선족이 한족보다 자녀 양육의 혼란을 겪으며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족 간 차이는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조선족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드러내었다(표 5 참조).

〈표 6〉은 양육 관련 정서에 대한 지역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이를 보면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은 세 문항이 모두 연길시보다는 배경에서 높게 나타

〈 표 5 〉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정서

단위: %, 점(명)

| 구분                | 전혀 그렇지<br>않음          | 별로 그렇지<br>않음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사례수)     | 4점<br>평균         |
|-------------------|-----------------------|--------------|--------|--------|------------|------------------|
|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                       |              |        |        |            |                  |
| 조선족               | 15.5                  | 38.3         | 37.1   | 9.0    | 100.0(399) | 2.40             |
| 한족                | 26.4                  | 35.8         | 26.4   | 11.4   | 100.0(201) | 2.23             |
| $\chi^2(df)/t$    | 13.8(3) <sup>**</sup> |              |        |        |            | 4.7 <sup>*</sup> |
| 아이 키우며 참고 사는 것 같음 |                       |              |        |        |            |                  |
| 조선족               | 23.3                  | 37.3         | 28.6   | 10.8   | 100.0(399) | 2.27             |
| 한족                | 30.8                  | 31.3         | 30.3   | 7.5    | 100.0(201) | 2.14             |
| $\chi^2(df)/t$    | 6.0(3)                |              |        |        |            | 2.3              |
|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                       |              |        |        |            |                  |
| 조선족               | 13.0                  | 23.3         | 35.6   | 28.1   | 100.0(399) | 2.79             |
| 한족                | 15.9                  | 22.4         | 40.3   | 21.4   | 100.0(201) | 2.67             |
| $\chi^2(df)/t$    | 4.0(3)                |              |        |        |            | 1.8              |

주: 4점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1, \* p < .05, # p < .1

〈 표 6 〉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단위: 점(명)

| 구분                   | 조선족   |       |                     | 한족    |       |                  |
|----------------------|-------|-------|---------------------|-------|-------|------------------|
|                      | 북경    | 연길    | t                   | 북경    | 연길    | t                |
|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 2.58  | 2.21  | 19.4 <sup>***</sup> | 2.38  | 2.08  | 4.9 <sup>*</sup> |
|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 2.47  | 2.07  | 18.4 <sup>***</sup> | 2.31  | 1.98  | 6.3 <sup>*</sup> |
|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 2.93  | 2.65  | 7.8 <sup>**</sup>   | 2.55  | 2.79  | 3.1 <sup>#</sup> |
| (사례수)                | (200) | (199) |                     | (100) | (101) |                  |

주: 4점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 표 7 〉 중국 동포 자녀양육 정서 영향 요인

단위: 개, %(명), 점

| 구분                |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
|-------------------|-------------------|----------------------|---------------|
| (상수)              | 0.50(0.59)        | 0.83(0.64)           | 3.31(0.70)*** |
| 모취업(1=취업)         | -0.01(0.11)       | -0.15(0.12)          | -0.06(0.13)   |
| 모학력(1=대학이상)       | -0.03(0.11)       | 0.17(0.12)           | 0.13(0.13)    |
| 거주지(1=북경)         | 0.12(0.12)        | 0.19(0.13)           | 0.42(0.15)**  |
| 가구소득(로그값)         | 0.48(0.16)**      | 0.34(0.18)*          | -0.20(0.19)   |
| 응답자(1=어머니)        | -0.04(0.09)       | -0.03(0.10)          | -0.06(0.11)   |
| 수정 R <sup>2</sup> | 0.06              | 0.06                 | 0.02          |
| (사례수)             | (399)             | (399)                | (399)         |

\*\*\*p < .001, \*\*p < .01, \*p < .05, #p < .1

나서 일관성 있게 연결지역의 자녀양육 정서가 더 안정적임을 나타냈다. 반면에 한족은 자녀양육에 대한 혼란과 참고 산다는 응답은 북경에서 높았으나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는 응답은 연결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응답의 일관성이 낮았다.

〈표 7〉은 중국 동포 자녀 양육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은 북경이 연결보다 점수가 높고, 이외 두 개 항목은 유의도가 사라졌다. 이는 자녀 양육에서 혼란과 인내는 보편적 정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가구소득이 양육에 대한 혼란과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는 부정적 정서의 응답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 5. 자녀 양육에서의 한국과의 관련성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관련성은 언어 사용과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실태,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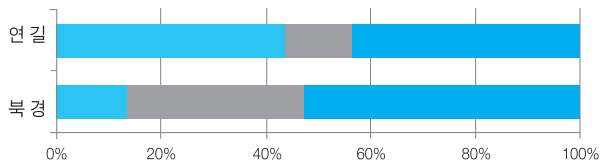
성장 후 한국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 파악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선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태이고 자녀가 성장해서 한국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갖는 기대로, 이 세 가지를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 가. 사용 언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28.6%, 중국어 23.6%이고 혼용이라는 응답이 47.9%로 약 과반수 정도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연결시는 43.7%인데 비하여 북경 거주자는 13.5%에 불과하였다(그림 3 참조).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부모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부모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곧 부모가 다닌 유치원이나 학교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집 중 조 명



[그림 3] 지역별 중국 동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되었다. 이는 다닌 학교가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이 많이 살고 조선족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고, 따라서 집안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조선족유치원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조선족유치원에 한족반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 동포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면서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한어 교육을 선택하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 나.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등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는지에 대하여 대체로 그러함이 44.1%이

고 매우 그러함이 23.6%로 총 67.6%의 응답자가 자녀에게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8%이고 20.3%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북경 거주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냈다. 자녀에게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비율이 북경은 61.5%이고 연길시는 73.9%이다.

특히 연길에서는 많은 가정에 한국 위성을 안장하여 한국 동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점에서 한국 만화책을 구입하여 보게 하는 것도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만화, 동화, TV프로그램 등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가 성장해 가면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표 8 참조).

### 다.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

다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로 자녀가 성장

〈 표 8 〉 중국 동포의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

단위: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br>않음 | 대체로<br>그렇지<br>않음 | 대체로<br>그러함 | 매우<br>그러함 | 보여주고 싶으나<br>접하기 어려움 | 계(사례수)     | X <sup>2</sup> (df) |
|----|--------------|------------------|------------|-----------|---------------------|------------|---------------------|
| 전체 | 9.8          | 20.3             | 44.1       | 23.6      | 2.3                 | 100.0(399) | 61.1(4)***          |
| 북경 | 12.5         | 23.0             | 36.5       | 25.0      | 3.0                 | 100.0(200) |                     |
| 연길 | 7.0          | 17.6             | 51.8       | 22.1      | 1.5                 | 100.0(199) | 11.1(4)*            |

\*\*\* p < .001, \*\* p < .01, \* p < .05



하여 한국과 관련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다섯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표 9 참조).

미래 자녀의 한국과의 관련에 대한 기대 응답이 4점 만점에 2점대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도 보면 한국과 관련된 일하기,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모두 18% 정도가 매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는 자녀가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13% 정도는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매우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북경 거주자가 자녀가 커서 한국과 관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연길 거주자보다

높다(표 10 참조). 이러한 지역 차이는 이들이 기대하는 한국과의 관계 양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길시 조선족의 경우는 방문 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 비율이 높다. 북경시 응답자가 고학력자로 한국기업 등에 사무직으로 관계 맺기를 기대한다면, 연길시 응답자는 서비스업이나 단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은 중국동포 부모들의 상당수가 자녀가 주류 중국인으로 잘 성장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 9 〉 중국 동포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태도

단위: %, 점(명)

| 구분               | 전혀 안바람 | 그다지 안바람 | 대체로 바람 | 매우 바람 | 계(사례수)     | 4점 평균 |
|------------------|--------|---------|--------|-------|------------|-------|
|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 13.0   | 33.3    | 35.6   | 18.0  | 100.0(399) | 2.65  |
|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 12.3   | 32.1    | 38.1   | 17.5  | 100.0(399) | 2.65  |
| 한국에서 일하기         | 19.8   | 37.1    | 25.3   | 17.8  | 100.0(399) | 2.48  |
|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 28.6   | 32.6    | 25.3   | 13.5  | 100.0(399) | 2.34  |
| 한국에서 공부하기        | 16.3   | 28.8    | 34.3   | 20.6  | 100.0(399) | 2.63  |

주: 4점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다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 표 10 〉 중국 동포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 구분               | 조선족   |       |          |
|------------------|-------|-------|----------|
|                  | 북경    | 연길    | t        |
|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 3.01  | 2.16  | 104.7*** |
|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 3.00  | 2.22  | 89.6***  |
| 한국에서 일하기         | 2.86  | 1.96  | 98.8***  |
|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 2.74  | 1.73  | 130.5*** |
| 한국에서 공부하기        | 2.99  | 2.20  | 75.1***  |
| (사례수)            | (200) | (199) |          |

주: 4점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다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 6. 정책제언

조선족은 한족에 비하여 자녀 갖기에 긍정적이며, 남아 선호 태도가 더 강하고,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체로 북경 거주자가 더욱 전통적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자녀양육시 혼란스럽다는 부정적 정서는 한족 보다는 조선족이, 그 중에서도 북경 조선족의 경우가 더 강하여, 소수민족으로서의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특히 경쟁이 강화된 사회에서의 어려움이 더 큼을 나타냈다.

북경 조선족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 한국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지만 민족적 의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 성장 후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고, 이러한 경향은 북경에서 더 강하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이 43.7%이다. 그런데, 조선족 언어 사용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조선족유치원으로, 조부모의 조선족유치원 교육 경험이 부모의 사용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은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경 조선족은 중국 주류 사회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다르게는 민족적 정체성이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조선족 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의 활성화는 국적과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한인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중국동포 사회의 높은 자녀교육열을 고려하여 교육과 문화적 콘텐츠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의 영유아나 부모 지원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영유아기 및 학동기 자녀를 둔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 및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매우 유의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중국 거주 조선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족유치원을 통한 간접적 조선족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프로그램 지원이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주 정부는 유치원에서 소수민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유치원 교육과정에 한국 전래, 전통놀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약화되고 있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족자치구 동포 아동의 상당수가 한국 등 외국이나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음도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족 유치원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 교재교구 · 부모 교육 지원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 집단 간의 교류이다. 중국은 2010년 7월에 발표한 국가교육정책의 청사진인 국가계획(the Plan)에서 유아교육을 확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등록률 제고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 및 학술적 교류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외에, 문화 체험, 백일장, 사생대회 등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 및 활동을 확대하여 중국 동포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중 한국공관 산하에 문화원과 같은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가주도의 사업 이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 교류나 중국 진출 기업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한 가족단위 지원도 좋은 방법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동북3성과 북경·상해·광주 등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